



Hana Market Weekly

#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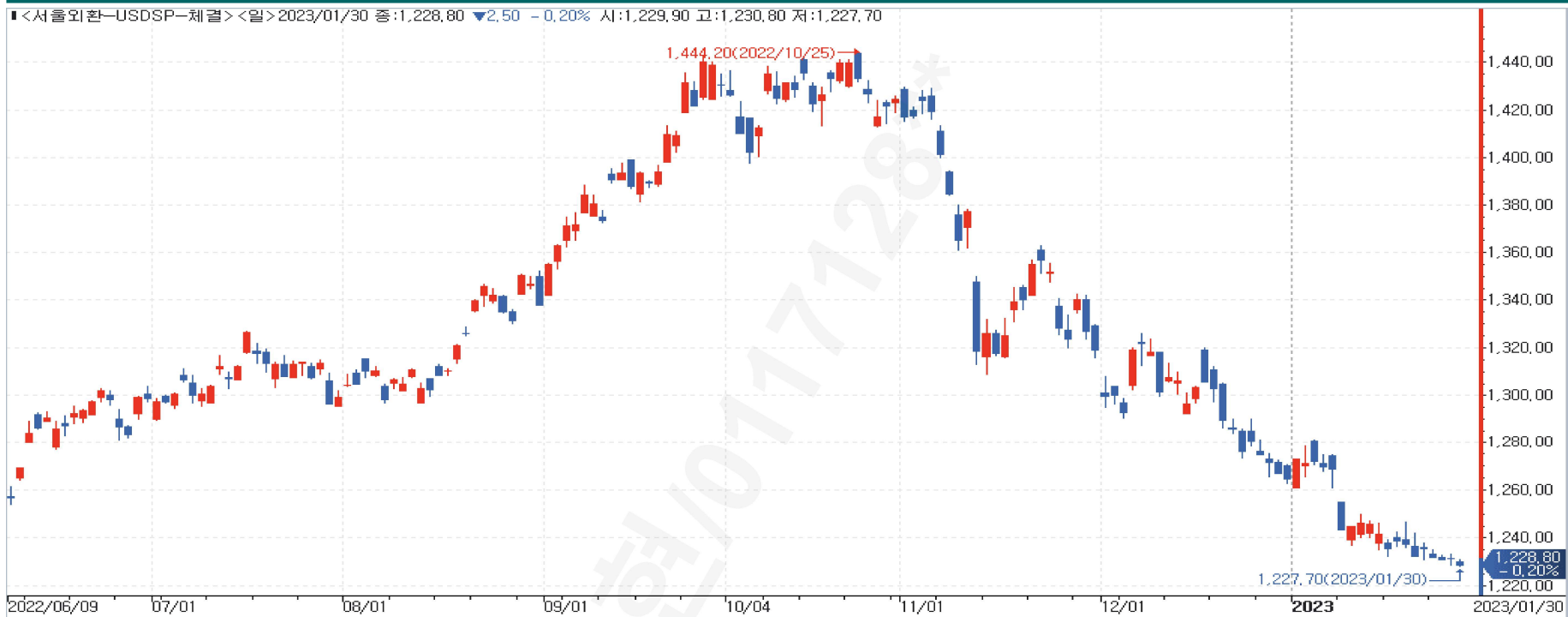
2023. 1. 30

서 정훈 연구위원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주간 달러/원 동향(1/25~1/27) 및 전망



## 주간 달러/원 동향

- 설 연휴기간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중단 이슈가 미국채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에 영향을 미치며 환율 하락 출발 했으나, 수급적으로 결제 수요 우위 등의 요인으로 상승 흐름 전환. 이어 미국 물가 추세 하락 기대 등에 따른 연준 속도 조절 우위 영향에도 4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한 측면과 대내적 무역수지 적자 흐름 등 대내외적 경제지표 요인에 의한 영향이 소폭 상승 흐름을 지속 시키며 1,230원 초반 마감

## 달러/원 전망

- 미국 12월 PCE 지표가 전년대비 5.0% 상승에 그치며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가 확연히 높아진 가운데 2월 FOMC에서 25bp 금리인상이 시장 전반의 예측된 가격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요인이 달러 약세를 지지하며 환율 하락에 중심이 될 전망
- 여기에 상대적으로 근원CPI 상승세 지속 등에 따른 매파성향을 유지하는 ECB의 공격적 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도 달러 약세에 영향을 주효하게 미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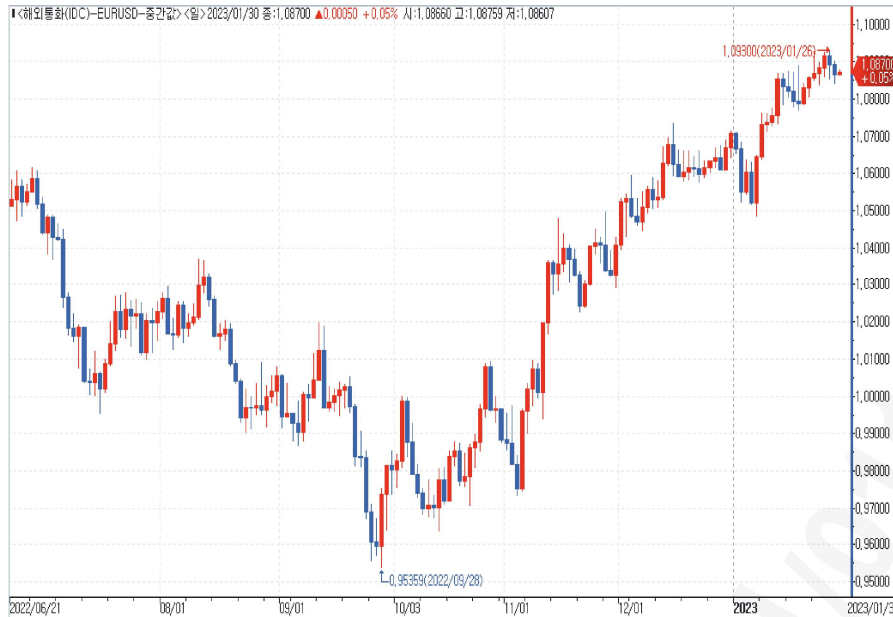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233.0	1235.2	1227.9	1231.3	-4.2

## 예상거래범위

1,220원 ~ 1,235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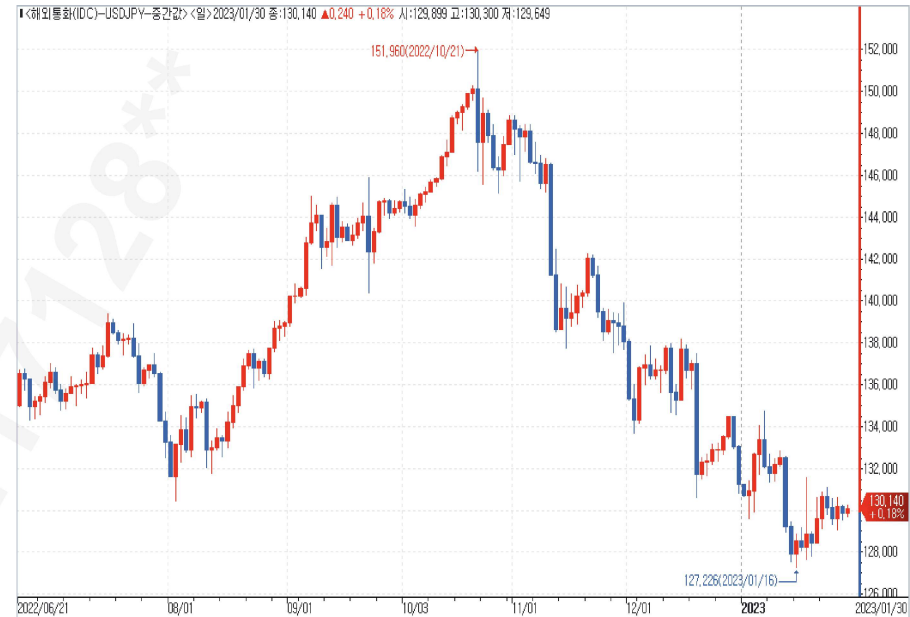
# 엔·유로화 동향 (1/23~1/27)



## 유로화 동향

- 주초, ECB의 매파적 행보 지속에 9개월 만에 유로화가 최고치까지 상승하며 강세 출발. 이어 미국의 경제지표가 위축된 양상을 보였지만, 2일 FOMC 결정에서 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선반영되며 제한된 달러 약세 흐름에 유로 강세 지속
- 중반 들어, 미 4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보다 호조를 보임에 따른 달러 강세 재개 영향 등으로 재차 약세 전환
- 후반 들어, 연준 정책 결정의 주요 물가 지표인 PCE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결과를 보인 가운데, 시장의 선반영 영향 등으로 달러의 제한적 약세 흐름 속에 유로화는 소폭 약세 흐름 보이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857	1.093	1.0835	1.0865	+0.0008



## 엔화 동향

- 주초, BOJ 통화정책 변경 무산 후, 일본 은행의 유동성 공급 정책 등 초완화 정책 행보에 약세 출발. 이어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 속에 2일 FOMC에서의 25bp 인상 전망이 99% 이상을 기록하며 제한적 달러 약세 흐름으로 엔화는 강세 흐름 전환
- 중반 들어, 미국 4분기 GDP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연율 2.9% 성장을 보인 영향 등이 달러 강세 견인하며 엔화는 재차 약세
- 후반 들어, 미 PCE지표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연준의 금리 인상폭이 제한될 것이란 기대 반영과 BOJ가 빠르게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란 영향 등으로 강세 전환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29.6	131.1	129.0	129.9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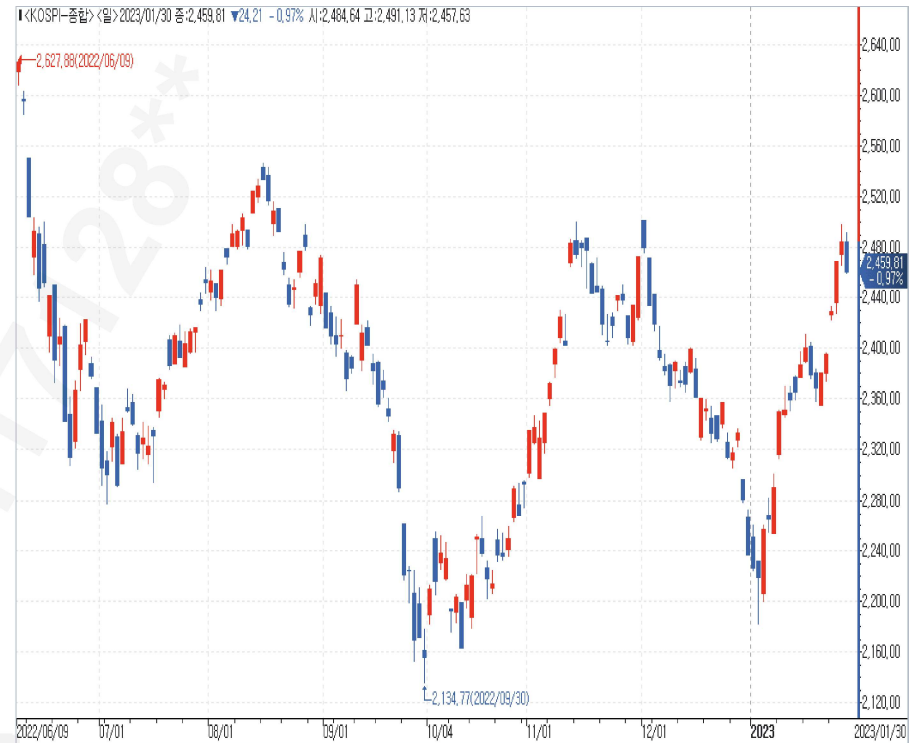


#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25~1/27)



주간 국고채금리 동향

- 국내 설 연휴 전 미 연준 위원의 2월 FOMC에서의 25bp 금리인상 선호 언급 속 국내 수급상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 확대 등으로 하락 출발. 이어 캐나다 중앙은행의 25bp금리 인상 후 향후 인상 중단을 시사한 영향 반영에 따라 중단기간이 소폭 하락한 반면, 국내 4분기 GDP가 -0.4%를 나타낸 영향에 따른 외국인 장기구간 매도 영향 등으로 금리 커브는 다소 스티프닝된 국면 시현
- 후반 들어, 미 주간실업보험청구건수 감소 등의 영향을 미 국채금리가 반영하며 상승한 영향 속에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등으로 상승 흐름 전환하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설 연휴 기간 중 상승한 뉴욕증시 흐름 반영한 가운데 외국인, 기관의 매수 확대 로 상승 출발. 이어 미 연준의 베이비스텝 피벗 기대 속 뉴욕 증시의 기술주 중심 실적 호조 등으로 기관, 외국인 투자자의 소위 쌍끌이 매수로 상승 추세 지속
- 후반 들어, 미국 4분기 GDP가 전기 대비 2.9% 증가하며 연착륙에 대한 기대 반영 속에 뉴욕 증시의 테슬라 실적 호조 등이 코스피 투자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 등으로 상승 흐름 마감